

소년교정기관에서의 상과 벌*

최 윤 진**

이 용 교

- I. 문제제기
- II. 이론적 배경
- III. 연구방법
- IV. 연구결과 분석
- V. 결론과 제언

I. 문제제기

오늘날 점차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청소년범죄나 비행에 대하여 시민들의 한탄과 우려의 목소리는 높으나 실제로 어떻게 대처하여 해결해야 할 지에 관해서는 주목할만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기에 그 어느때 보다도 비행청소년들의 효과적인 교정처우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과도기적인 성장과정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보여주는 행동은 자유의사보다는 비

행을 유발하고 조장하는 환경적 영향을 훨씬 많이 받고 있으며 행동에 대한 주위의 반응여부와 결과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비행청소년 교정처우는 그들의 행동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통해 옳은 행동과 잘못된 행동을 인식하게 하여 잘못된 행동을 감소시키고 바람직한 행동을 학습하여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데 노력을 우선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이다.

현대의 형벌이념도 응보처벌 중심에서 교육형 중심으로 변모해 감에 따라 소년교정기관의 기능과 역할도 비행청소년들에 대한 자유박탈이나 처벌위주의 통제 감독중심에서 벗어나 그들을 주변의 나쁜 환경적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고 반사회적인 성행을 진단하고 치료하여 교육, 개선시킴으로써 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시키는데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년교정의 이상과 목적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교정교화의 활동들이 청소년의 반

* 이 논문은 본 개발원의 1994년도 연구사업인 「소년교정기관에서의 상과 벌」을 요약한 것임.

** 공동연구자는 본 개발원의 최윤진(연구위원), 이용교(연구위원)임.

사회적이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변화시키고 개선시키는데 과연 얼마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긍정적인 결과를 찾기 힘들며 매우 회의적인 반응들이 지배적이다. 도리어 청소년이 교정기관에 수용됨으로써 또래집단의 비행 문화에 영향을 받아 범죄를 학습하게 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¹⁾

물론 교정교화 활동이 행동의 변화만을 위해 수행된다고 볼 수 없고 또 이미 비행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행동을 일정기간 동안의 교정교육을 통해 변화시킨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임을 감안하더라도 교정처우를 받는 청소년의 행동에 바람직한 변화가 없다면 도리어 악화된다면 교정활동이 제대로 수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교정기관의 존재이유 자체에 의문이 제기되어 질 수 있다.

그러면 비행청소년들의 행동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 그동안 상과 벌은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매우 중요하고 유용한 교육적 방법으로 인식되어져 왔다. 임상심리학자나 행동수정이론가들에 의하면 어떤 행동이 보상을 받게 되면 강화되어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무시당하거나 처벌을 받게 되면 그 가능성이 감소된다는 가정 아래 적절한 보상과 처벌 및 행동에 관한 공정한 평가를 통해 인간의 문제행동이나 반사회적 행동들을 감소시키고 도덕적이고 바람직한 행동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상과 벌이 학교, 가정, 직장 등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교육시키고 문제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한 대표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상과 벌의 교육적

효과가 많은 연구를 통해서 검토되고 확인되어진 바 있다.

그런데 비행청소년들을 모아서 수용하고 있는 교정기관의 경우, 수용자체가 비행에 대한 처벌의 성격을 갖고 있고, 또 행동의 교정이 기관의 주된 임무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어떤 기관이나 환경보다도 청소년에 대한 상과 벌이 중요한 교육적 기능을 할 수 있고 핵심적인 교정수단으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비행교정을 위한 다른 특별프로그램들에 비해 상과 벌은 특별한 경제적 부담이나 시간·시설 등의 제약없이 일상적이고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교육수단으로서의 장점도 갖고 있다. 그러나 비행교정에 있어서 상과 벌의 중요성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미흡하며 상과 벌이 실제 교정수단으로서 제구실을 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정기관에 있어서 상과 벌의 효과에 관한 연구결과도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상과 벌은 어떤 기준과 원리, 그리고 방법에 따라 사용되어지느냐에 따라 그 교육적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신중한 고려없이 상과 벌이 남용되어지기도 한다. 잘못 사용하게 되면 도리어 부작용과 역기능을 초래할 위험성도 있으므로 여러가지의 유의사항들이 지적되기도 한다(Shea & Bauer, 1987 : 246).

비행청소년의 교정에 있어서도 상과 벌이 적절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사용되어야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은 물론이고, 특히 소년교정기관에 서는 이미 비행의 경험과 학습이 이루어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비행 또래 집단의 영향력이 다른 어떤 곳보다도 큰 상황임을 감안할 때 상과 벌의

1) 소년법의 제벌율이 1988년에 21.8%이던 것이 1991년에 23.2%, 1992년 24.3% 등으로 점차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사실이었을 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하나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적용기준이 보다 엄격하고 합당하여야 하며 그 방법 역시 교정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한 적절한 것이 될 수 있도록 그 선정에 있어서 매우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이러한 전제들이 충족되지 못한 채 개략적, 형식적인 보상과 처벌이 청소년들에게 주어지게 되면 사회적, 정서적 방황기에 처한 그들에게 도리어 사회나 기관에 대한 반감과 함께 그릇된 가치관과 행동양식을 형성케하는 역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비행청소년의 교정효과는 교정기관 내에서의 결과만으로 평가될 수 없으며 교정의 효과가 바깥 일반사회에 복귀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교정기관 내에서의 상벌을 통한 성행교정의 과정에 있어서도 단지 외부적인 통제에 의한 타율적 변화가 아니라 행동규범을 청소년 스스로 내면화하여 자기강화에 의한 행동통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또 교정기간 내의 행동변화가 바깥 실제사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정환경의 조성과 상벌의 적용방법이 개발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과연 한국의 소년교정기관에서는 이러한 상과 벌이 교정수단으로 얼마나 사용되고 있으며 또 어떤 내용과 기준, 방법 등에 의해 사용되어지고 있는가? 상과 벌의 대상이 되는 행동들이 타당한가? 상과 벌의 적용기준이 공정한가? 상과 벌의 방법과 유형이 적절한가? 상과 벌이 실제 교정수단으로서 효과를 거두고 있는가? 교정의 효과를 저해하는 요인과 문제점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하고 개선하여야 하겠는가? 등의 의문들이 본 연구를 통해 제기된 연구문제들이다. 이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국 소년원에서 교정처우를 받고 있는 원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주어지는 상과 벌의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고 원생

및 교사들의 의견과 요구를 조사하여 현존하는 상과 벌의 제도와 프로그램에 있어서 문제점을 찾고 앞으로의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는데 연구의 주요 목적이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비행에 관한 이론적 관점

범죄나 비행의 원인에 관해서는 각 학문분야마다 다양한 이론이 제기되고 있으나 그 유사성에 따라 크게 몇 부류로 분류하면 행위자가 처해있는 사회적 상황에서 그 원인을 찾고자하는 사회학적 이론과 행위자의 혈통, 유전자 결합 등에서 비행의 원인을 파악하는 유전 및 생물학적 이론, 그리고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 관심을 두고 개인적 동기, 성격적·정서적 특성 등에서 비행의 원인을 찾고자 하는 심리학적 이론 등이 있다.

이 중에서 특히 심리학적 이론들은 같은 문화나 사회내에서 살고 있는 구성원들 중에 잘 적응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왜 어떤 사람들은 비행을 저지르게 되는가에 일차적인 관심을 갖고 다양한 해석을 제기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관점은 범죄의 발생이 행위자의 정신이상이나 정신지체 현상 등 정신질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는 정신질환적 관점, Freud의 이론에 기초를 두고 개인의 내면속에 해결되지 못한 충동과 본능 및 그 통제수준이 적절치 못하여 갈등상태에 직면하게될 때 비행이 발생된다는 정신분석학적 관점, 행위자의 반사회적인 성격으로 보는 성격론적 관점, 범죄적 행동이나 비행은 다른 정상행동들과 마찬가지로 학습된다고 보는 학습이론적 관점 등을 들 수 있다.

비행의 원인에 관한 학습이론적 관점은 비행의

진단과 치료, 교정에 있어서 행위자 내부의 정신적 과정 보다는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에 초점을 두고 정신적 치료보다는 행동의 수정을 강조한다. 비행의 원인에 관한 다른 심리학적 관점(정신질환적 관점, 정신분석학적 관점, 성격론적 관점)이 인간의 행동을 내면적이고 근원적인 정신구조의 징표로만 보고 이상행동이나 비행역시 내부 정신과정의 이상의 징후로 파악함으로써 외현적 행동에 관해서는 2차적 의의 밖에 부여하지 않은 채 각종 정신요법이나 심리치료 등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학습이론적 관점에서는 인간의 행동은 사회적, 물리적 환경과의 부단한 상호작용 과정에서 형성되는 명백히 학습된 결과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비행의 원인과 치료 모두 관찰 가능한 행동에 초점을 두고 행동중심적 접근방법에 의해 규명하고자 하게 된다.

인간행동에 관한 심리학적 학습이론에 토대를 둔 행동중심적 접근에 따라 인간의 행동변화를 위한 실천적이고도 효과적인 응용연구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다양한 행동수정의 응용모형이 지난 수십년 동안 개발되어 왔다. 다른 심리학적 접근방법에 비해 학습이론적 관점에 따른 행동중심적 접근방법이 훨씬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며 청소년 비행의 교정을 위해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주장되어지곤 하는데 Stumphauzer(1986)는 이러한 행동중심적 접근방법의 장점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 행동중심적 접근은 청소년의 범죄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청소년의 범죄적 행동에 관심을 갖고 탐색함으로써, 비행 및 문제의 성격을 다른 접근방법보다 더욱 잘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다. 둘째로, 비행의 성격규명뿐 아니라 행동의 변화나 처치(treatment)과정에 있어서도 행동중심적 접근방법은 보다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공하여 줄 수 있다. 셋째로, 행동중심적 접근방법은 행위자의 과거의 숨겨진 요인이라든지 잠재의식적 현상 등에 대한 관심보다는 비행이 어떻게 학습되었고 또 지금 유지되고 있는지 등에 관한 '지금, 여기(her and now)'에 대하여 일차적 관심을 갖고 접근함으로써 비행교정에 보다 실질적이고 쓸모있는 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넷째로, 행동중심적 접근방법은 범죄자에 대한 처벌중심적 관점에서 벗어나 그들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학습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적절한 학습방법을 모색함으로써, 다른 접근법에 비해 보다 윤리적이고 인간변화에 대한 긍정적 관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학습이론적 관점에서는 비행은 학습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비행이 어떻게 배워지며 어떻게 교정되는지에 일차적인 관심을 두고 어떻게 학습이 이루어지며 또 무엇이 행동을 변화시키는지에 관한 행동수정의 원리를 다양하게 탐색하고 있다.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이나 행동수정이론가에 의하면 어떤 개인 행동의 변화는 행위자의 행동이 가져오는 반응들을 조작함으로써 나타나는 강화 효과에 의해 가능하다고 보는데 즉 개인의 행동이 긍정적이고 유쾌한 반응을 초래하게 되면 행동이 정적으로 강화되어 학습되어지는 반면 불쾌하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초래하게 되면 행동은 감소되거나 제한되어 행동의 변화가 가능하다고 본다. 이러한 변화를 초래하는 행동에 대한 대표적 반응 양식들로서 정적 강화(positive reinforcement, 부정 강화(negative reinforcement, 소멸(extinction, 벌(punishment 등을 들 수 있다(SHEA & Bamer, 1989).

Stumphauzer(1986)는 사회학습이론에 근거한 대표적 행동수정의 원리로서 정적 강화의 원리, 모델링과 모방(modeling and imitation)의 원리, 소

멸의 원리, 벌의 원리 등 4가지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정적 강화의 원리나 모델링과 모방의 원리들은 어떤 행동을 증가시키는데 주로 적용되는 반면에 소멸의 원리나 벌의 원리는 어떤 행동을 감소시키거나 줄이는데 적용되어 행동의 학습과 수정의 기초원리 및 기법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이러한 4가지 원리 모두 비행을 학습시키기도 교정시키기도 하게 된다고 Stumphauzer은 밝히고 있다(Ibid, 69). McGinnis와 Goldstein(1984)은 청소년들의 사회성 학습을 위한 행동적 접근법의 하나인 구조적 학습structured learning의 기본 구성요소들로서 그 학습의 ① 모델링 modeling, ② 역할극role playing, ③ 수행반응performance feedback, ④ 훈련의 전이transfer of training의 4가지 기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학습의 절차와 원리는 사회성 훈련뿐만 아니라 다른 바람직한 행동의 학습과정에도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볼 때 학습한 행동을 강화시키기 위한 수행반응performance feedback단계에서 상과 벌은 행동의 강화를 위한 핵심적인 기법으로 사용되어지게 됨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상과 벌은 행동을 학습시키거나 변화시키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는 행동수정의 원리 및 기법이 될 수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비행은 상과 벌에 의한 강화의 원리에 의해 학습되어지기도 하고 또 같은 원리에 의해 변화시키거나 교정될 수도 있음을 인식할 때 비행의 교정을 위해서는 이미 학습된 비행을 멈추도록 하고 그 자리에 비행과는 상반된 행동이나 바람직한 행동이 대신 학습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이것은 적절한 상의 부여를 통해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키고 적절치 못한 상의 제거나 적절한 벌의 부여를 통해 바람

직하지 못한 행동을 감소 혹은 제거시키는 과정을 통해 가능하게 된다.

2. 비행교정기법으로서의 상과 벌

일반적으로 賞이라 함은 좋은 행동이나 잘한 일에 대해 칭찬이나 격려의 표적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게 하고 행위자에게 만족감과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부여되는 긍정적인 보수인 반면에 罰이란 한 개인이 해야 할 일을 못했거나 허용되지 않는 일을 했을 때 주어지는 불쾌, 고통, 만족의 박탈 등의 부정적 보수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한 개인으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일으키거나 동기를 유발시킴에 있어서 正的(+)효과를 주는 것을 賞으로 또 負的(-)효과를 주는 것을 罰로 지칭하는 것이 상과 벌에 대한 광의적 개념 정의라고 본다면 보다 협의의 유사개념들로서 칭찬과 질책, 포상과 징계 등을 들 수 있다. 칭찬과 질책은 주로 언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상과 벌의 유형으로서 일상생활에서 비공식적으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상과 벌이라고 볼 수 있으며 포상과 징계는 국가나 공공단체 등에서 기관의 발전이나 관기(官記)의 유지를 목적으로 구성원의 선행과 비행에 대하여 공식적 절차에 따라 부여되거나 과해지는 상과 벌이라고 볼 수 있다.

비행교정에 있어서 상과 벌의 주요기능은 청소년들에게 좋은 행동과 나쁜 행동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좋은 행동은 반복하게 하고 나쁜 행동은 멈추도록 하여 비행을 교정시키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학습이론적 관점에 따르면 상과 벌은 그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는가에 따라 비행을 학습시키기도 하고 또 비행을 교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본다. 따라서 비행의 학습의 효

과를 제거하고 효과적인 비행의 교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과 벌의 활용을 적절히 하여야 할 것이다.

3. 소년교정기관에서의 상과 벌

소년교정기관 내에서는 비행의 교정활동은 바깥 일반사회에서 교정활동과 비교해볼 때 다음과 같은 두가지 측면에서 그 교정 및 효과를 얻기가 더욱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 첫째로 청소년들이 실제로 적응하고 배우며 살아가야 할 일반사회와는 이질적인 폐쇄된 기관내에서 교육받고 있기 때문에 시설내에서의 교육이 일반사회 적응에 적절한 효과를 가져오지 못할 수 있다는 점과, 둘째로 비행집단이 같이 생활하게 됨으로써 청소년들이 또래 비행청소년들로부터 범죄를 모방하고 배우게 되는 범죄학습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Stumspauzer, 1986 : 81). 이러한 상황 속에서 수용된 청소년들은 또래 비행청소년들로부터 반사회적 행동에 대해 인정, 격려 등 지속적인 강화를 받게되고 바람직한 행동과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사이의 기준이 애매모호 하여지기 쉽다. 따라서 소년교정기관에서 교정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우선 그 곳에 수용될 청소년들이 행동상의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파악하여 교정해야 할 목표행동을 적절히 선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잘못된 행동의 감소와 바람직한 행동의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소년교정기관에서의 상과 벌이 주로 규율준수 및 질서유지를 통해 원생들을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주로 활용되어질 경우 실제 원생들이 갖고 있는 행동장애 성격의 파악과 상과 벌을 통한 행동수정의 노력이 미흡하게 되어 실질적인 교정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기 쉽다.

상과 벌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수정시키고 바람직한 행동을 학습시키는데 효과적인 교육적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과 벌의 수단으로 제공되는 유인가가 행위자인 청소년들의 요구와 기대에 부합되고 또 제공되는 벌의 유형과 방법이 청소년의 성숙정도, 심리적 특성, 청소년이 처한 상황, 환경 등의 제반요소들을 고려하여 선택된 것들이어야 한다.

따라서 벌의 유형과 방법을 선정할 때에도 청소년들의 행동과 동기유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강화인(reinforcer)들과 그들이 싫어하거나 두려워하는 제재방식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별로서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그런데 행위자의 동기유발을 위한 유인가나 강화인들은 행위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선호하는 유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특히 교정기관에 수용된 비행청소년들의 경우 시설의 폐쇄성, 수용처우의 특수성에 따라 바깥 일반사회와는 다른 요구와 기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소년교정기관에서 효과적인 상과 벌의 유형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기관에 수용된 원생들의 요구와 기대를 물어보고 파악하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비행청소년의 교정프로그램의 실태와 개선방안을 상과 벌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범죄소년에 대한 교정프로그램은 크게 사회내 처우와 시설처우가 있다. 상과 벌이 비행청소년의 성행교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려는 이 연구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일상생활속에서 다양한

자극에 노출된 보호대상자는 상벌을 적용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효과를 측정하기는 더욱 어렵기 때문에 시설내 처우를 받고 있는 범죄소년중에서도 소년원생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²⁾

2. 연구방법

이 연구는 관련 문헌분석, 기관방문과 관계자 면접조사, 설문조사 등에 의해 수행되었다.

문헌연구는 청소년비행에 관한 대표적인 이론인 학습이론적 관점과 행동중심적 접근에 관한 다양한 문헌을 검토하고, 비행교정기법으로서 상과 벌의 적용, 소년교정기관에서의 효과적인 상과 벌을 모색할 수 있는 주로 외국문헌을 연구하였다. 또한, 소년교정기관에서의 상벌규정과 교정기관의 내부자료 등을 분석하였다.³⁾ 연구진은 A소년원과 B소년원을 수차례 방문하여 원생들에게 교과교육, 직업훈련, 생활지도 등을 직접 실시하는 관계 직원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연구의 주요 내용과 설문조사의 방법을 논의하였다.

3. 설문조사의 방법

조사대상의 모집단은 전국의 모든 소년원의 원생과 그 직원으로 하고, 소년원의 종류와 직원의 특성을 감안하여 표본조사를 실시하였다.⁴⁾ 설문

조사는 1994년 8월 18일부터 8월 31일 사이에 전국 11개 소년원에서 이루어졌다. 배포된 설문지의 수는 원생용이 1,108명(전체 원생 2,222명의 49.9%), 교사용이 229명(전체 교사 334명의 68.6%)이고, 설문에 응하여 분석된 것은 원생이 1,061명, 교사가 203명이다. 수집된 자료는 편집과 입력작업을 거쳐 SPSS-PC+(4.0V)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는데, 분석에는 빈도분석(frequency), 교차분석(crosstabs tables) 등이 사용되었다.

4. 응답자의 특성

본 설문조사에 응답한 원생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보면, 성별은 남자가 대부분(92.5%)이고 여자는 극히 일부(7.5%)이다. 원생의 연령은 19세가 27.3%로 가장 많고, 다음은 18세(24.0%), 20세이상(22.2%), 17세(14.6%), 16세이하가 11.9%로 18~19세가 과반수(51.3%)를 차지한다. 입소시기는 1994년 전반기가 45.5%로 가장 많고 다음은 1993년 후반기(23.8%), 1994년후반기(15.9%), 1993년 전반기(10.9%), 1992년(3.9%) 등으로 입소후 1년미만인 사람이 약7할이다. 교육과정은 교과교육(47.9%)이 직업훈련(52.1%)보다 약간 적고, 교과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중학교과정(25.1%), 고등학교과정(21.1

2) 소년교정기관에는 감별소, 소년원, 소년교도소 등이 있지만, 감별소는 보호소년을 대개 한달동안 보호하면서 감별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상벌은 주된 개입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적합하지 못하고, 소년교도소는 소년이라도 보호처분대상자와는 차이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본 연구는 연구대상을 소년원에 있는 보호소년에 한정시켰다.

3) 상벌규정은 소년법, 소년원법과 시행령, 보호관찰법과 시행령 등을 분석하고 소년원의 지침을 통해서 파악했다. 또한 소년원에는 보호소년별로 「소년관리기록부」가 있는데, 이 기록부에 정리된 신상조사서, 비행요인기준표, 개별처우계획, 지방법원 처분결정, 감별결과통지서, 각종 검사지의 답안지, 행동관찰기록부, 상담기록부, 면회록, 통신통, 생활성적표 등에 대한 검토는 연구의 세부방향과 설문지를 작성하는데 매우 유익했다.

4) 연구진이 작성한 설문지(안)는 소년원의 교무과장, 법무부 소년과 담당사무관, 범죄학 전공 교수, 상담학 전공 교수 등의 자문을 받아서 사전조사용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사전조사는 1994년 7월 29일 서울소년원에서 원생 20명과 교무과 직원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국민학교과정(1.8%) 순이다. 부모는 양부모가 모두있는 경우가 64.2%이고, 나머지는 편부모(28.4%)이거나,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7.4%)로 결손가족 출신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에 응답한 교사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보면, 성별은 남자가 대부분(89.6%)이고 여자는 극히 일부(10.4%)이다. 연령은 30대가 60.2%로 가장 많고 다음은 20대(17.4%), 40대(16.4%), 50대(6.0%) 등의 순으로 20-30대가 77.6%를 차지한다. 담당영역은 교과교육이 34.0%이고 다음은 생활지도(32.0%), 직업훈련(16.2%), 기타(17.8%)로 대부분 원생을 직접 지도하고, 그중 약반수(48.5%)는 담임이다. 보도직 종사경력은 3년 미만인 33.8%로 가장 많고 다음은 3~5년(29.8%), 12년이상(20.7%), 6~8년(10.1%), 9~11년(5.6%) 등의 순이다.

IV. 조사결과 분석

1. 칭찬과 상의 기회

칭찬이나 상의 기회가 부족하며 그 유형이 다양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을 받거나 칭찬을 들었을 경우에 '기분이 좋았으며 더욱 노력할 의욕이 생겼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응답자 전체의 89.2%에 이르고 친구들이 칭찬을 듣거나 상을 받을 때는 '나도 노력해서 상을 받고 싶어진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81.3%인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칭찬이나 보상에 대한 청소년의 반응이 매우 호의적이며, 이것이 그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킬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특히 소년원생들의 경우 상당수가 가정이나 학교에서 적응기에 좌절을 맞보고 부모나 교사로부터 칭찬이나 보상을 받은 경험이 적은 청소년들

임을 감안할 때 소년원 교육과정중에 원생들에게 주어지는 칭찬이나 보상의 효과는 훨씬 클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소년원 생활중에 선생님께서 칭찬을 들은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은 40.1%에 이르고 기관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1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소년원 내에서 원생에 대한 칭찬이나 보상의 기회가 충분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더 많은 원생에게 더 자주 칭찬의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원생들이 칭찬을 받게된 이유는 주로 청소, 작업, 실습 등을 열심히 했든지, 공부, 운동, 기능 등의 능력이 우수하다고 칭찬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상받은 원생들인 경우는 교과 성적이 좋은 원생에게 주어지는 우수상, 직업 기능이 우수한 원생에 주어지는 기능상, 생활태도가 좋은 원생에게 주어지는 모범상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칭찬이나 포상은 주로 교과나 직업능력이 우수하거나 규율이나 책임준수를 잘 하는 원생들에게 주어진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학업 및 직업능력과 규율 및 질서의 준수태도는 원생들이 갖추어야 할 매우 중요한 성행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외에도 대부분의 비행청소년들에게 결핍되어 있는 자아통제력이나 타인의 입장을 고려할 줄 아는 협동적이고 이타적 정서와 행동 등이 원생들의 성행교정에 더욱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측면이다.

2. 별과 성적평가의 공정성

별과 성적의 평가가 보다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원생들이 별이나 성적평가의 결과가 공정하다고 생각할 수록 그들의

성행변화에 적절한 효과를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상이나 벌, 그리고 성적평가는 무엇보다도 공정한 기준과 방식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본 조사에서 대다수의 원생들이 소년원 내에서 수행되고 있는 현행 성적평가의 결과나 벌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으로 수용하였다. 우선 벌을 받았을 때의 느낌을 물어보았더니 ‘벌 느낌이 없었다’(11.4%)거나, ‘분하고 기분이 나빴다’고 응답한 원생들(26.5%)보다 ‘잘못된 행동에 대한 댓가를 받았다고 생각하며 반성하였다’고 응답한 원생이 전체 응답자의 62.1%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벌을 받은 후 행동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데에 대한 질문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18.9%)거나 더욱 반항적 행동을 하게 되었다(11.7%)는 청소년 보다 잘못된 행동을 고치고자 노력하였다는 청소년이 69.5%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 점은 교사에게 벌을 받은 원생들의 반응과 행동변화를 물어본 질문에서도 비슷한 응답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즉 대부분의 원생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75.1%)고 하였으며 벌을 준 후 원생들이 ‘잘못된 행동을 고치고자 노력한다’고 보는 교사(63.9%)가 가장 많았다. 또한 매달 이루어지는 생활성적 평가 결과에 대해서도 ‘노력한대로 반영된다’고 생각하는 원생(48.9%)이 때로는 노력한 만큼 반영되고 때로는 그렇지 못하다(35.4%)고 생각하거나 ‘노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나온다’(15.3%)는 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현행 성적평가의 결과나 벌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과 수용적 태도를 보이는 원생들이 많다고 볼 수 있으나 그것이 얼마나 공정하게 이루어지느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는 원생들도 상당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주요 조사결과들을 정리해 보면, ‘예전에도 비슷한 행동을 하였으나 칭찬(벌)을 받지 않았다’라는 사항에 ‘예’라고 응답한 원생들이 45%(칭찬: 44.6%, 벌 44.8%)에 이르고, ‘나와 비슷한 행동을 한 친구도 있었으나 나만 칭찬(벌)을 듣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사항에 ‘예’라고 응답한 원생들도 37~38%(칭찬: 36.9%, 벌: 38%)에 이른다. 이것은 상벌이 시간의 변화에 상관없이 일관성 있고 또 동료원생들 사이에 형평성 있게 적용되고 있는가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갖고 있는 원생들이 상당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보다 합리적인 기준으로 시간의 변화나 대상, 원생에 대한 주관적 판단에 치우침이 없이 일관되고 형평성 있는 공정한 상벌의 적용이 보다 요청됨을 알 수 있다.

매달 이루어지는 생활성적 평가 결과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32.7%의 원생들만이 매우 공정(15.5%)하다거나 약간 공정(17.2%)하다고 응답했을 뿐 나머지 원생들을 보통(49.2%)이라고 생각하거나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생활지도 성적이 불공정하게 평가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노력한 과정보다는 겉으로 나타나는 결과에 따라 평가된다’(27.2%), ‘선생님 개인의 판단에 따라 좌우된다’(21.2%), ‘평가가 형식적이다’(21.7%), ‘잘하고 잘못된 것에 대한 기준이 애매모호하다’(19.3%) 등의 순서로 응답하였다.

3. 효과적인 상과 벌

원생·교사의 기대와 요구를 고려한 보다 효과적인 상과 벌의 프로그램과 방법의 개발이 요청되어지고 있다. 원생들에게 주어지는 칭찬이나 포상은 기대하는 내용과 방법에 부합될 때 더욱 보상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며, 또 벌

이나 징계는 그들에게 반성과 각성을 줄 수 있려면 그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또 어떤 벌이나 제재방법이 그들에게 영향력이 있는지를 파악하여 그것에 부합하는 내용과 방식을 모색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전국 소년원에서 현재 수행되고 있는 원생들의 선행에 대한 보상들과 비행에 대한 제재방식들, 그리고 교사들이 평소 원생 행동에 대해 주는 칭찬과 벌의 내용과 방식들이 실제 원생들이 요구하거나 기대하는 바와 괴리가 있음을 본 조사의 관련 결과들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현재 각 소년원에서 원생들의 선행에 대한 댓가로 부여되는 보상내용을 알아보았더니 원생과 교사 모두 상품, 사회시설의 견학이나 참관, 반장이나 명예있는 지위, 보이스카웃 등 단체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많이 준다 등의 순으로 가장 많이 지적하고, ‘면회횟수를 늘려준다’든지 ‘특별한 기구나 설비 등을 사용하게 해 주는 일’ 등은 가장 적게 지적하였다.

그런데 원생들에게 선행의 댓가로 어떤 보상을 받고 싶은지 물어보았더니 원생들은 외박(27.6%), 집과의 통신(24.5%), 사회시설의 견학이나 참관 및 외출(18.5%)의 순으로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 또한 교사들에게 어떤 보상을 원생들에게 주어야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지에 관해 물어보았더니, 외부견학의 기회(40.1%), 보이스카웃 등 단체활동(16.8%), 외박(17.7%)의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나타나는 주요 시사점은 원생들이 가장 바라는 바는 소년원 바깥사회나 집, 가족들과의 접촉의 기회가 확대되는 일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원생들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유인가는 외부, 특히 집이나 가족과의 접촉기회를 늘려주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선행의 정

도나 수준에 따라 가장 모범적이고 신뢰할 만한 성행을 보여주는 원생들을 선별해서 집에서의 외박이나 가족과의 전화통화를 가능하게 해 주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원생들에게 만약 선행의 댓가로 사회시설의 견학이나 참관 및 외출의 기회를 갖게 된다면 어떤 곳을 방문하고 싶은지 물어보았더니 가장 많은 원생들은 ‘집에 가고 싶다’고 응답하였고 그 외에 박물관, 유적지, 고아원이나 양로원, 독립기념관, 대전 엑스포 전람회장, 자동차공장, 꽃동네, 정비사업단체, 규모가 큰 보일러실 등을 들고 있었다.

또, 만약 선행의 댓가로 특별한 기구나 설비를 사용하게 해 준다면 어떤 것을 사용하고 싶은지 물어보았더니 전화와 운동기구를 가장 많이 꼽고 그 외에도 카세트, 시계, 노래방기구, 컴퓨터, 오락실, 자동차 정비 첨단기계 등을 들었다. 특별 격리수용 기관인 소년원의 성격이나 현실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원생들의 기대나 요구들이 모두 충족되고 수용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선행의 댓가로 주는 보상의 내용이 원생들에게 유인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보상의 내용과 방법 선정에 있어서 그들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는 방안도 고려됨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재 소년원에서 잘못된 행동을 한 원생들에게 벌로서 가해지는 제재의 내용을 본 조사를 통해 알아본 결과 원생과 교사 모두 ‘단독근신’, ‘면회중지’를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었으며 그 외에도 ‘교육활동의 제한’이나 ‘다른 소년원으로의 이송’, ‘TV 시청금지’ 등 다양한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원생들에게 가장 두렵게 느껴지는 제재방법이 무엇인지 물어본 결과 다른 소년원으로의 이송, 면회중지라고 대답하고

있다. 원생들의 반응을 염두해 둘 때 잘못된 행동에 대한 제재방식이 대상행동의 성격이나 정도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보다, 행동의 비행성이나 심각성의 정도나 경중에 따라 단계적인 제재가 이루어짐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원생의 행위가 의도적, 반복적이거나 그 피해가 심각할수록 ‘면회중지’나 ‘다른 소년원원으로의 이송’ 등 원생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제재방식이 취해져야 할 것이다.

본 조사에 따르면 소년원에서 평소의 교육과정 중에서 선생님께서 받고 있는 벌의 방식은 ‘말로 타이르거나 꾸지람’하거나 ‘매를 맞는다’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외에도 ‘무릎 꿇고 벌을 선다’거나 ‘단체기합을 받기’, ‘반성문 쓰기’ 등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원생과 교사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치기 위해 평소 어떤 종류의 벌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더니 원생들은 말로 타이르거나 꾸지람 하는 것(30.5%), 반성문쓰기(22.9%), 화장실이나 통로 청소(13.4%)의 순으로 응답하였고, 교사들은 반성문 쓰기(31.2%), 화장실이나 통로 청소(24.1%), 무릎 꿇고 벌서기(20.1%)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볼 때 원생들이나 교사 모두 효과가 적은 방법으로 인식하는 ‘매를 맞는 방법’은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는 반면에 원생들이나 교사들이 효과적인 벌의 방법으로 생각하는 ‘화장실이나 통로 청소’나 ‘반성문 쓰기’ 등은 현재 각 소년원에서 가장 적게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일상생활중의 벌의 방식도 교사나 원생의 의견을 고려하여 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평소에 원생들을 칭찬함에 있어서도 될 수 있으면 원생들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함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본 조사의 결과

에 따르면 원생들은 선생님이 내가 속한 반 전체를 칭찬해 줄 때, 나에게 개별적으로 격려해 줄 때, 친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나에게 칭찬을 해 줄 때의 순서로 ‘매우 좋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런데, 교사들은 친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칭찬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였다.

4. 좋은 행동과 나쁜 행동

상은 좋은 행동을 강화시키고 벌은 나쁜 행동을 소멸시키기 위한 교육적 수단임을 인식할 때 상과 벌이 제대로 교육적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대상행동인 선행과 비행의 성격 규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행의 교정을 일차적 목적으로 하는 소년원 교육에 있어서는 강화시켜야 할 행동과 변화시켜야 할 행동의 유형과 성격이 일반학교나 보통청소년 집단과는 다를 수 있다. 물론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일반청소년과 마찬가지로 지식과 기능 등의 능력을 갖추는 일, 또 사회 규율과 질서를 지키는 행동 등이 강화해야 할 좋은 행동이라고 볼 수 있지만, 소년원의 원생들의 경우 지식과 기능을 갖추는 일 못지 않게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또 소년원 내의 규율을 준수하고 개인적 책임을 완수하는 일 못지 않게 자제할 줄 아는 자아통제력이나 타인의 고통을 공감할 줄 알고 나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겪는 고통에 대해 죄책감을 느낄 줄 아는 도덕적 감수성의 함양 등이 강화되어야 할 중요한 성행들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조사에서는 소년원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선행과 비행의 사례들을 4가지 영역의 선행(이타적 행동, 자아통제적 행동, 집단규범준수 행동, 개인책임 완수 행동)과 비행(이기적 행동, 충

동적 행동, 집단규범위반 행동, 개인책임 위반 행동)으로 분류하여 원생들과 교사들이 어떤 영역의 행동들을 얼마나 좋게 혹은 나쁘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원생과 교사 모두 이타적 행동(나이어린 원생을 도와준다 등)이나 자아통제적 행동(힘들고 어려운 행동을 끝까지 참고 완수한다 등)을 매우 좋은 행동으로 보는 비율이 높았으며 단체규율준수 행동(청소를 매우 잘한다 등)은 약간 좋은 행동으로 개인책임 완수 행동(복장이 단정하다 등)은 보통행동으로 보는 비율이 높았다. 이 점은 나쁜 행동을 보는데 있어서도 유사한 관점이 발견되는데 즉, 원생과 교사 모두 매우 나쁜 행동은 남을 괴롭히는 이기적 행동이라 하고, 다음으로 통제력이 부족한 충동적 행동들을 매우 나쁜 행동으로 보는 비율이 높았다. 그리고 단체 규율위반 행동과 개인 책임 위반 행동은 약간 나쁜 행동이나 보통행동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 책임위반 행동들은 단체규율위반 행동에 비해 보통행동으로 보는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포상과 징계관련 규정이나 소년원 내의 선 비행카드 운영규정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선행과 비행의내용과 생활성적 평가의 평가항목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규율준수와 위반의 여부가 선행과 비행의 기준이 되고 있을뿐 자아통제력이나 도덕적 감수성의 유무는 별로 고려되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성행의 교정이라는 교정교육의 기본이념에 부합할 수 있는 선행과 비행의 성격구명과 그 정도에 따른 선별기준이 새롭게 제시됨으로써 상을 주어야 할 행동과 벌을 주어야 할 행동의 우선순위가 가려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5) 상과 벌의 효과성

상·벌 및 성적평가의 결과가 원생의 신상에 별로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교정수단으로서의 실효성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본 조사에서는 소년원 교사들에게 전반적인 생활성적 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가장 많이 지적한 문제점이 원생들의 최대 관심사인 퇴원이나 가퇴원의 결정이 수용기간과 비행명 등에 의해 주로 좌우될 뿐 성적 결과는 그 중요성에서 뒤로 밀리기 때문에 원생의 관심과 동기유발을 촉구할 교육적 수단이 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었다.

따라서 상벌의 수여나 성적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기 쉬운데 이러한 현상을 심화시키는 그 밖의 요인들로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성적평가 방법이나 기준이 마련되고 있지 못한 점, 평가덕목이 너무 많고 추상적인 점, 평가횟수가 너무 빈번한 점 등이 평가 방법상의 문제점들로 제기되었고 직원 1인당의 원생수의 과다, 교사의 과중한 업무부담과 전문성의 부족, 성적평가후의 후속 조치의 미흡 등이 교육 여건상의 문제점들로 지적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비행소년들의 감호, 관리, 감독해야하는 수용기관으로서의 특수성 때문에 실질적인 교육적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되는 교정기관의 구조적인 문제가 상벌 및 성적평가의 실효성을 저하시키는 근본요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벌이나 성적의 결과가 원생에게 행동변화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원생의 퇴원 등 신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적 개선과 함께 소년교정기관이 수용 및 감

호의 업무보다도 교육업무가 우선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추는 일이 무엇보다도 필요함을 시사받을 수 있다.

V. 결론과 제언

본 연구는 한국의 소년교정기관에서의 상과 벌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과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상·벌 관련 이론적 배경의 탐구, 상·벌 관련 규정 및 현황분석, 소년원 원생과 교사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상과 벌을 소년교정기관에서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교정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포상과 칭찬의 기회가 부족하므로 상의 기회를 확대하고 그 유형을 다양화시켜야 한다. 소년원 생활중에 선생님께서 칭찬을 들은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은 40.1%이고 기관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1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연간 포상 횟수와 대상 인원의 규모를 늘리고, 다양한 행동유형에 따른 포상을 개발하여야 한다. 규율준수나 책임완수 등 가시적으로 명시된 유형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애, 용기, 인내, 노력하는 습관 등을 장려할 수 있는 우애상, 용기상, 인내상, 노력상 등을 개발하도록 한다. 또한 포상의 수준을 차별화 하고, 포상별로 그 정도와 수준을 고려하여 단계를 설정하고 포상의 주체를 외부기관이나 대회참가로 인한 포상, 소년원장이 수여하는 포상, 담임이 수여하는 포상 등으로 수여 주체를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행 규정이나 관행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상과 벌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한다. 예를 들면, 표준화된 선행과 비행의 목록표의 개발, 과학적이고 공정한 평가방법의 개발과 상·벌의 공정성 검토 및 심사를 위한 교사·직원의 정기적 연수와 주기적 웨샵 및 평가회를 개최, 주기적인 무기명 설문조사로 원생들의 의견을 평가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현행 징계기준을 사회적 상황과 현실감각에 맞게 수정·보완하며 규정상 용어들을 명료화 한다. 비공식적인 벌을 공식화하고 징계로 인한 감점 범위를 하향 조정하여서 현재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징계를 양성화할 때 늘어나는 감점을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다. 징계를 수행함에 있어서 원생에게 서면고지, 소명기회부여, 재심청구, 이의신청의 기회를 부여하여 징계절차상 공정성을 확보한다. 다양한 행동수정 기법이나 특별교육 등 처벌을 대체할 수 있는 벌의 방법을 행동의 심각성의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마련한다.

셋째, 원생과 교사의 기대와 요구를 고려한 보다 효과적인 상과 벌의 프로그램과 방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상의 유형, 방법의 선정에 있어서 원생의 취향, 욕구를 고려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욕구조사를 실시한다. 선행의 댓가로 원생들이 가장 바라는 요구는 사회나 집, 가족들과의 접촉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외부와 접촉기회의 부여'를 가장 영향력 있는 유인가로 활용하도록 한다. 모범적인 원생들을 선별하여 외출의 기회를 부여하고 가족과 전화통신을 가능하게 한다. 사회참관활동을 장려하고 참관기관이나 시설을 다양화 한다. 선행에 대한 댓가로 전화, 운동기구, 노래방기구, 카세트, 시계, 악기, 컴퓨터, 자전거 등 원생들의 욕구가 강하고 수용 가능한 것부터 여가활동기구나 개인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원생의 나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보상의 유형 및 방법을 차별화하여 선정한다.

벌은 행동이 일어난 직후에 지체않고 즉각적으로 일관성있게 이루어져야 하며 벌의 유형과 방법이 청소년의 성숙정도, 심리적 특성 등에 비추어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제재나 벌의 유형은 원생이 두려워하는 정도를 감안하여 비행의 정도, 심각성에 따라 차별적, 순차적으로 활용한다. 원생간의 비공식적인 징계와 폭력적 또래문화를 정화시키고 그 대신 스포츠, 토론 등으로 전환하고 민주적인 또래문화 조성에 적극 노력하도록 한다. 생활성적평가는 평가항목을 축소하고, 절대평가로 하며, 점수보다는 글로 기술하여 단계적 수준을 표시하고, 평가자를 담임중심으로 간소화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무엇이 좋은 행동이고 나쁜 행동인지에 관한 합리적인 관점이 정립되어야 한다. 선행과 비행의 성격구명과 그 선별기준이 새롭게 정립되어야 하고, 현행 포상 징계관련 규정이나 '선비행카드'제도 등에 있어서 대상 행동의 분류기준이나 정도, 우선순위 등이 재사정되고 재정립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규율준수라든지 책임완수 등 원생들에 대한 관리적 관점이 강조되는 선행들뿐만 아니라 도덕적 감수성이나 자아통제력 등 많은 원

생들에게 부족한 성품과 능력을 키우고 개선시키고자 하는 교육적 관점에서 상과 벌이 주어져야 한다.

다섯째, 상·벌 관련 제도와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상벌이나 성적의 결과가 원생에게 행동변화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원생의 (가)퇴원 등 신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적 개선과 함께 소년교정기관이 수용 및 감호의 업무보다도 교육업무가 우선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추는 일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우선, 가퇴원을 판정할 때는 수용기간이나 비행명보다 교정성적을 중시하여야 하며, 교정성적의 결과가 (가)퇴원에 중요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특별가퇴원의 요건을 완화하고 성적우수자나 포상 경험자들을 우대하는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퇴원요건이 되는 교정종합성적기준에 있어서 생활성적의 기준을 강화하고 반면에 교과교육성적의 기준을 완화하도록 한다. 가퇴원과 만기퇴원의 차별성을 강화하여 가퇴원제도의 유인가를 높이도록 한다. 교사들의 잡무축소와 업무부담의 경감을 통해 실질적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한다.

참 고 문 헌

- 김준호 외. 1993. 「비행소년 감별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대구소년원. 1989. 「소년원생의 행동발달 상황 평가에 관한 연구」.
- 법무부. 1994. 「비행소년의 교정 - 소년감별소·소년원」.
- 법무부 보호국. 1991. 「소년보호관계법령집」.
- 서울보호관찰소. 1994. 「보호관찰현황」, 보호관찰자료 제2호.
- 송중두 역. 1981. 「청소년 이론」, 계명대학교 출판부.
- 안양소년원. 1993. 「소년원생 교정성적평가에 관한 연구」.
- 유효순·이성진. 1993. 「행동수정기법 I, II」, 교육과학사.
- 이윤호. 1991. 「소년보호처분의 효과분석」, 형사

- 정책연구원.
- 원호택. 1991. 「청소년 범죄행동 유발 요인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운진. 1992. 「아.태지역 청소년 교정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교정연구 제2집, 한국교정학회.
- 최운진. 1993. 「교정사회사업」, 청소년복지론, 한국청소년개발원.
- 최인섭 외. 1993. 「소년보호관찰의 평가와 효율성 분석, -서울보호관찰소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원.
- 표갑수. 1986. 청소년비행원인이론, 한국복지정책연구소.
- Center, D.B. 1989. *Curriculum and Teaching Strategies for Students with Behavioral Disorders*, Prentice Hall, Englewood Cliffs.
- Feindler, E.L & Kalfus, G.R. 1990. *Adolescent Behavior Therapy Handboo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New York.
- Feldman, P. 1982. *Developments in the Study of Criminal Behaviour*, Vol.1 & vol.2. John Wiley & Sons, New York.
- Fort Wayne Community Schools, Ind. 1989. 'Alternativeto Corporal Punishment', ERIC Document Resume, ED 312, 778.
- Goldstein, A.P., Sprafkin, R. P., Gershaw, N.J. & Klein, P., 1980. *Skillstreaming The Adolescent*, Research Press.
- Gullotta T.P. & Adams. G.R. 1990. *Developing Social Competency in Adolescence*. Sage Publications, New Bury Park.
- Herbert, M.1978. *Conduct Disorders of Childhood and Adolescence*. John Wiley & Sons, New York.
- Kaufman, K.F. and O'Leary, K.D., Reward, Cost, and Self-Evaluation Procedures for Disruptive Adolescents in a Psychiatric Hospital School. *Journal of Applied Behavior Analysis*, 1972. No.3, 293-309.
- Kazdin, A.E.and Bootzin, R.R 1972. The token economy : an evaluative review. *Journal of Applied Behavior Analysis*, No.3, 343-372.
- Kendall, D.C. 1991. *Childand Adolescent Therapy*, The Guilford Press, New York.
- Krueger, M.A & Powell, 1990. *Choices in Caring*, Child Welfare League of America, Washington, DC.
- LeCroy, C.W. 1983. *Social Skills Training for Children and Youth*, The Haworth Press New York.
- McGinnis, E. & Goldstein, A.P 1984. *Skillstreaming the Elementary School Child*, Research Press.
- Mishne, J.M 1986. *Clinical Work with Adolescents*, The Free Press, New York.
- Molnar, A. & Lindquist, B. 1989. *Changing Problem Behavior in Schools*, JosseyBass Publishers, San Francisco.
- Rizzo, J.V. & Zabel, R.H. 1988. *Educating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Behavioral Disorders : An Integrative Approach*, Allyn and Bacon, Boston.
- Santogrossi,D.A.,O'Leary, K.D.,Romanczyk, R. G.,and Kaufman,K.F 1973. *Self-Evalua-*

- tion by Adolescents in a Psychiatric Hospital School Token Program. *Journal of Applied Behavior Analysis*, No.3, 277-287.
- Schroeder, C.S. & Gordon, B.N. 1991. *Assessment and Treatment of Childhood Problems*, The Guilford Press, New York.
- Seoane, M & Smink, J. 1991. *Incentives and Education, A Series of Solutions and Strategies*. No.4. ERIC Document Resume ED 341920.
- Shea, T.M. & Bauer, A.M 1987. *Teaching Children and Youth with Behavior Disorders*, Prentice-Hall, Englewood Cliffs.
- Stokes, T.F., Bear, D.M. & Jackson, R.L. Programming the generalization of Agreeting Response in Four Retarded Children. *Journal of Applied Behavior Analysis*, 1974. No.4, 599-610.
- Stokes, T.F., & Baer, D.M. An Implicit Technology of Generalization. *Journal of Applied Behavior Analysis*, 1977, 10, 349-368
- Stumphauzer, J.S., 1985. *Helping Delinquents Change*, The Haworth press, New York.
- Trojanowicz R.C. & Morash. M. 1983. *Juvenile Delinquency* Prentice-Hall, Englewood Cliffs.